

## 비본질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자아정체성

조혜자<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자아는 사회적이며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간의 조건은 다원적이고 관계적인 자아를 갖게 만든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심리학 이론들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관계적으로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고 정의내리고 그 이유를 신체구조나 발달과정에서 찾으려 해 왔다. 본 논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관계적 자아를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비본질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여성에게 사회가 적용하는 고정관념과, 남성과 비대칭적인 역할, 지위, 파워의 조건이 여성을 관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관계적 자아만이 강요될 때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였다.

### 1. 들어가며: 자아의 사회적 측면

‘자아(self)’는 인간행동의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조절자로서, 개인 내부에서 작동하는 정신현상으로 생각되어 왔다. 맥콜에 의하면, 자아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경험하고 인식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 철학적 입장을 정리한 김선희(1997)는 자아는 개인적인 것이고, 주체의 내면적인 경험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아의 개념에 의해 한 개인을 이해하는 방

식은 그 개인을 그의 행위와 사고와 의도와 기억 등을 인식하는 자기-의식적인 실체(일인칭적인 나)로 인지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자아를 정신 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심리학자들은 자기 반성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자기 추론, 자기지각, 자기 귀인과 관련하여 자아와 정체성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심리학적 전통에서는 내성(introspection)에 의해 자각되는 의식적인 현상만이 ‘자아’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 교신저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hyejacho@hanmail.net)

자아 역시 강조되어왔다. W. James는 자아를 I-self와 me-self의 두가지 방식으로 분석하면서, I-self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하는 자기(self as knower)라면, me-self는 인지되는 자기(self as known)로서, 자아의 내용을 대표하며,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일반에 대한 감정과 평가라고 보았다. 그는 I가 me를 지각하는 것이 반성적 사고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자아는 '물질적인 자아', '사회적인 자아', 그리고 '정신적인 자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면서, '사회적인 자아'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의 사회적 자아를 갖는다고 보았다. Cooley(1902)는 제임스보다도 더 사회적 자아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자아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면서 얻어진 감정으로 구성되는 자아를 강조하며, 이를 체경자아(looking glass self)라고 불렀다. 자아관 자체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내성적인 자아라고 할지라도 세계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자아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은 Kant의 순수이성비판에서부터 유래한다. 칸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접 지각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세계 내 무엇을 지각하는 행위는 지각할 수 있고, 그런 방식에 의해 자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보았다. 즉 자아는 직접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어떤 활동을 통해 지각되며, 추론과 연역을 통해 자아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는 항상 상황지위지며, 그 상황들을 통합해서 만들어지는 자아는 구성적인 것

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Higgins(1996)는 자기지식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self digest"를 구성하고, 그 안에는 자아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본다. "self digest" 구성을 위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세계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이다. 따라서 자기 지식은 개인과 환경간의 적합성을 개선시키는 적응적인 잇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아를 아는 것은 그 자체 결과가 아니라 수단이고, 자기지식의 성질은 실용적이고 상호작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심리학의 이론들과 연구들은 자기지식과 개인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속성을 판단할 때에나 자신의 정체성 판단에 대인관계적 원천을 가지며, 자기체계 내에 사회집단 정체감 표상을 갖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Snyder & Cantor, 1998; Deaux & Kite, 1993). 따라서 사회심리학자들은 개인적인 자아뿐 아니라 관계적 자아, 집합적 자아를 분리하여 다루기도 한다. 개인적인 자아란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자아의 측면을 의미하고, 관계적 자아란 타인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소속시킴으로써 자아를 찾으며, 독자성과 상호의존성을 발견해 가는 자아의 부분이라고 본다. 즉 유의미한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아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집합적 자아는 자신을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으로 내포시켜 정의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면서 만들어진다. 집합적 자아는 집단과의 동일시에서 비롯된 유대감에 기초한다. 전반적으로 문화나 사회가 규정하는 처방적 의미가 내면화되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

되어 있느냐에 따라 낙인이나 무능력감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존감이 고양될 수도 있다.

## 2. 다원적인 자아

자아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역할, 관계, 사회적 구조, 집단들과 관련하여 구성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에는 자아의 대인관계적 또는 역할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자아가 단일하며 통합된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구성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던적 입장에서는 자아를 개인 내면에 존재하는 독립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근대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자아나 실재의 본질은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진리나 실재란 담화와 맥락에 따라 순간순간 변하고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구성적인 것이며, 자아 역시 연결적이고 맥락이나 사회교환, 담화 내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자아는 사회교환의 산물이고, 사회교환 안에 존재하며, 각기 다른 자아가 각기 다른 관계적 상황에서 나타남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아나 주체는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Butler(1993, 1997)는 “나”가 존재하기 이전에 담론이 존재하고 “나”는 담론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나”는 이름 불리워지고, 명명되고, 호명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나”는 타인의 언급에 의해, 그리고 그것을 인지함으로써(being recognizable)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자아와 정체성의 이론들이 자아의 결정적 속성으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강조해 왔지만, 최근 사회심리학의 자아이론자들

가운데는 다중적인 자아를 논의하고 있다. 다중자아이론의 입장에 따르면, 각 개인은 다양한 자아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Rosenberg, 1997; Ashmore & Jussim, 1997). 개인은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아에 반영할 뿐 아니라, 그들과 있을 때의 자신에 대한 표상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다. 즉 자기 지식에 타인들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는 W. James나 Cooley의 이론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다중자아이론에서는 중요한 타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아개념이 각기 다르고,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자아경험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Kihlstrom과 Cantor(1984)는 자아표상은 상황마다 다른 신념을 표상하는 맥락특수적 자아개념의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Markus(1977)와 Fiske와 Taylor(1991)는 자아표상을 여러 영역의 자기 스키마로 이루어진 스키마로 구성된 다중적인 연합망 체계로 본다. 스키마란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 확장되고 수정되는 지식구조이기 때문에, 자아표상을 자기 스키마로 이해한다면 포스트모던의 자아이론을 좀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중 자아이론이나 자기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자아의 모든 측면들을 내어 보일 수는 없다. 특정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고와 행동은 자아의 어느 측면이 활성화되었는가와 관련되고, 자아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그 맥락과 대상이 요구하는 자아의 측면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서 일부만을

경험할 수 있다(Gergen, 1985). 성격의 5요인 (Big 5 theory)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도 5요인의 표현이 역할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드러남을 보고하고 있다. Ashmore & Ogilvie(1991)는 여러 요소들 중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의미한 타인들과 있을 때, 그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각기 다른 자아를 드러냄을 밝혔다.

Markus 등(1990)은 자아의 표상들 중 하위 유목만이 활성화되어 개인의 진행중인 활동과 반응을 조절한다고 보며, 이러한 자아를 '작업중인 자아개념(working self-concept)'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현재 주어진 시간에 자각되는 이러한 자아개념을 Baumeister(1998)는 현상적 자아로 명명한다. 이러한 작업중인 자아개념이나 현상적 자아는 기억에 비유한다면 작업기억에 해당하는 것이고, 컴퓨터의 저장체계에 비유한다면 현재 스크린에 떠 있는 정보내용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자아개념의 활성화 양상은 상황적 요구나 개인의 동기상태, 사회적으로 우세한 분위기, 역할 등에 영향을 받아 변환될 수 있는 것이다.

### 3. 여성의 자아 정체감

여성은 남성과 다른 자아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상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 인간으로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이 시간 장소에 걸쳐 동일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여성의 자아가 남성의 자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자신을 규정하고 다른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특히 정신분석학적 전통의 학자들은 여성이 남성과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고,

아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이 남성과 다르다고 강조해 왔다. 프로이드는 여성의 성 기관이 수동적으로 타인에 의해 만족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서 여성의 성격은 수동성, 자기도취, 수치심등을 띄게 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 이론의 충실한 승계자인 도이치는 여성은 남성과는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생리적인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성격도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은 출산과 월경에 묶여있고, 거기에서 쾌감과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르시시즘, 수동성, 마조히즘과 같은 성격특성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이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정신분석학을 성적인 문제보다는 심리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Erikson(1968)조차도 남녀의 신체적인 조건이 남녀의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의 발달이론은 개인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아양식이 경험하는 위기와 극복과정이 있다고 보면서 자아정체감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신뢰 대 불신, 자율성 대 의심, 주도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를 거쳐, 청년기가 되면서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 성인기에 이르면 친근감 대 고립, 생산성 대 침체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자아통합 대 절망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남녀 모두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치며, 자아의 강도 역시 남녀 구별이 없지만, 신체적 조건 때문에 여성의 정체감이 남성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는 여성의 정체감 형성은 아이를 잉태하는 자궁이라는 내적 공간을 가진 신체구조적 특징과 결부되며, 아이를 돌보는 생물, 심리, 윤리적인 관여 등 친밀한 인간관계가 전제된다고 보았다.

이후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신체 구조적 차이를 자아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였지만, 여성들이 자아를 규정할 때 관계성을 근거로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예를 들어 Chodorow(1989)는 전 오이디푸스 시기부터 어머니와의 대상 관계적 경험에 의해 남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어머니를 일차적으로 동일시하던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자아감이 발달하고 분화하면서 남녀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분리와 독립을 장려하고, 따라서 남자는 접촉이 많지 않은 아버지를 동일시하기 위해 남성 역할을 지위동일시 하면서 독립해 가는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딸을 분리된 인간으로 지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아에게 어머니는 일상에서 매일 접촉하면서 역할을 개인동일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므로, 자아경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성격은 관계와 연합 위에서 형성되며, 엄격한 독립적인 자아경계보다는 침투적이고 유동적인 경계를 가지며, 개별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즉 그녀는 여성의 관계성과 남성의 독립성은 어머니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Gilligan(1982)이나 Miller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자아감과 도덕성을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나 돌봄과 연결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Freud나 다른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여성의 경험이 남성과 다름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여성발달을 간과한다고 보고, 여성의 입장에서 도덕성과 자아의 개념을 다른 목소리로 제안한다. 즉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자아 개념은 타자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정의해 왔지만,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정

서적인 연결이고, 타인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 정체감과 관련된 이론이나 연구들 역시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성 정체감 이론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성 정체감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남성성 여성성을 성격변인으로 간주하는 연구들은 남성성은 도구성 또는 주도성으로 대표되고, 여성성은 표현성이나 친교성으로 대표된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 construal)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 construal)양식이 주장되고 있다. Cross와 Madson(1997)은 자아는 역동적인 문화적 창조물로서,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집합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해석 양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라 하더라도 젠더화된 세계 속에 살면서 남성들은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세하고, 여성들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우세하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차는 바로 자아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보처리 양상에서부터 기억하는 양상, 동기, 정서의 표현, 자기개방의 정도, 의사소통의 양상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가 남성과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들은 모두 다른 입장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관계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관계적이지 않은가? 여성들만 관계적인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관계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4. 왜 관계적 자아인가?

여성들의 관계성 강조를 여성의 신체나 발달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본질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왜 여성들의 자아의 특성이 관계중심적이 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아가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맥락과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을 수용한다면,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즉 고정관념과 여성들에게 맡겨지는 역할과 지위와 파워는 여성의 자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1) 고정관념의 영향

우리의 자아 평가가 타인의 눈을 통해서 평가된 것을 반영한다면, 여성에 대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여성의 자아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은 젠더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이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야 할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자라난다. 특히 성별은 여러 범주들 중에서 가장 현저한 범주이기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을 규정하는 첫 범주가 된다고 지적된다. 아동은 성별이 강력하고 우선적인 범주이므로, 자신의 성별을 구별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을 성별과 관련하여 바라보고 자기 정의의 기초가 된다. 또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문화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성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역할을 배우면서 성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자기를 규정해 나간다.

성별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연합은 과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 이전에서부터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고정관념은 아동의 인

지능력이 발달되기도 전에 그리고 고정관념의 타당성과 수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의문을 표시하기도 전에 아동의 기억에 형성된다. 그리고 고정관념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나 여성주의 관점과 같은 개인신념은 고정관념보다 늦게 발달된다. 이런 발달과정의 결과로 고정관념은 개인 신념보다 반복 활성화되고 습관적으로 사용되어 쉽게 접근 가능하다.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인 문화 속에서 사회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편견이 높은 낮은 문화 속에 내재해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고, 고정관념은 빈번하게 활성화되고 연합이 잘 이루어져 있으므로, 고정관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의 작용은 자아와 관련하여서도 나타난다. 자기 스키마나 자기 연합망 모형에서는 어떤 자기 구성이 working self가 되는가는 사회적 맥락에 달려있다고 본다(Higgins, 1996). 즉 빈번히 활성화되어 온 자아의 부분은 앞으로의 working self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가 여성에게는 자아 내의 많은 다른 정보들보다 여성이라는 사실을 더 빈번히, 더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정보마디들은 다른 정보마디보다 더 활성화 비율이 높고, working self가 되는 기회가 많다. 즉 여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성 일치 자기지식을 만성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따라서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이라는 사실을 자기 구성의 핵심에 놓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동안 사회 공동체가 구성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여성 자신의 자아표상에 반영된다. 사회나 공동체의 표상구성이 이론 의존적이고 1차적인 구성이라고 본다면, 개인에게서 실현되는 구성은 2차적인 구성이며, 자아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 고정관념의 내용적 특성은 남성은 강하고, 주장적이며, 지배적이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반면, 여성은 관계지향적이고, 양육적이며, 복종과 관련된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의 내용은 거의 범국가적이다. Williams와 Best(1982)는 30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성 고정관념을 조사했는데, 모든 국가에서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고정관념의 내용의 중요한 특징은 남녀가 반대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남성은 독립적인 반면 여성은 의존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내용은 남녀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단순히 남녀를 기술하고 묘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처방을 내리게 된다.

성 고정관념이 여성의 자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성 고정관념이 다른 고정관념들과는 달리 기술적인 메시지 뿐 아니라 처방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남성적”은 “남자다운 성질을 지니는 (것)”이지만, “여성적”은 “여성다운 일이나 상태”와 함께 “우유부단한 모양, 무기력한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의 정의에 담겨있는 내용은 여성은 능력이 없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임을 함의하고 있다. 최근에 Glick과 Fiske(1999)는 고정관념은 전형적으로 두 차원을 따라 집단들을 범주화하는데, 능력차원과 호감(likability)차원이라고 제안한다. 이때 유능성의 지각은 그 집단의 지위에 의해 결정이 되는 반면, 호감은 집단간 경쟁이나 협동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성 고정관념은 남성은 능력있는 집단으로 여성은 무능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즉 여성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녀관계는 경쟁적인 관계이기보다는 이성애가 개

입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차원에서의 우위성과 자신들이 저야하는 부담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에 대해 호감차원에서 처방적이고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을 적용하게 된다. 즉 남성들은 자신들이 사회와 가족을 위해 저야 하는 희생과 경제적인 부담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 정서적인 지원을 책임질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남자는 유능해야 하고, 여자는 착해야만 하는 것이다.

성 고정관념의 처방적 메시지는 여성 개인의 자아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적 배열을 현재의 가부장적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사회적 통제의 한 형태가 된다(Fiske, 1998). 성 고정관념의 내용은 여성의 양육적 특성을 강조하고 인간관계 중심적이 될 것을 처방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을 관계지향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자아정체감은 사회가 규정해 온 역할과 여성에 대한 평가와 담론들, 고정관념이 녹아들어 있는 역사의 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2) 역할

오랜 세월동안 사회 공동체가 구성한 남녀의 역할은 사회적 구조와 인간관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역할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개인의 자기 정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역할이란 특정 인간관계나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 담당하는 특성화된 행동집합을 말한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역할을 지정해 주게 되면 개인들은 그에 따르는 행동을 구성하게 되며, 정해진 방식대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

으로 조직구조에서는 집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각 개인에게 역할을 맡기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할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조직구조가 아니라도 집단이나 인간관계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역할들이 생겨난다.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Benne & Sheats, 1948). 그 하나는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역할이 과제역할과 정서적 역할이다. 과제역할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집단의 목표설정, 과제수행, 일의 할당 등을 담당하는 역할들로서, 집단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 반면 사회 정서적 역할은 집단 구성원들의 대인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조정자와 활력자, 위로자의 역할로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집단이론들은 이 두가지 욕구는 서로 충돌하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적 욕구를 방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수 없고, 따라서 역할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남녀의 역할 역시 과제역할과 정서적 역할로 이분되어 왔다. 그러나 집단이나 조직의 경우 능력과 관련하여 역할분화가 일어난다면, 남녀의 역할분화는 사회생물학이나 진화론적 관점을 수용하여 설명되어 왔다. 인간 생식과 관련하여 여성들은 아기를 생산하고 기르는 책임이 있으므로,

여성들은 아동에 대한 생식 투자를 하면서 정서적 역할을 맡게 되었고, 생식투자에서 자유로운 남성들은 과제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Glick & Fiske, 1999). Parsons는 남성들은 주로 과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구적 행동을 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사회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표현적 행동을 하게 되면서, 남성성 여성성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본다. Eagly(1987)는 남녀의 특성이 사회가 전형적으로 남녀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여성들은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친교성(communion)을 소유하게 되고, 반면 남자들은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주도성(agency)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역할이란 선생이나 친구, 어머니와 같은 것이지, 성이나 종족, 연령은 개인의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Kimmel, 2001).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사회는 성에 역할을 할당해 왔고, 남녀는 그 역할에 맞는 행동들을 수행해 왔다. 역할은 개인의 활동영역을 한정시키고 그 틀 안에서 자기를 규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 역할은 자아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는 서양에 비해 성과 연령에 따르는 역할을 더 많이 강조해 왔고, 이는 여성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각 개인이 맡는 역할은 집단과 사회적 망 속에서의 개인의 위치를 정의한다(Forsyth, 2001). 즉 개인이 자신을 정의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그 개인의 다양한 자아의 측면들 중에 그 역할에 맞는 특성들을 활성화시키도록 만든다.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나 직업이 주로 인간관계적이며, 사회 정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나 독립적인 자아보다 관계적인 자



기 인식이 우선될 수 있다. 또한 각 개인에게 맡겨진 역할은 각 개인의 능력을 그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은 그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는 자아해석에 개입하게 되어 자신을 그 역할과 관련시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순환성을 갖게 만든다.

사회가 남녀에게 각기 다르게 맡겨준 사회적 역할은 남녀 모두에게 특정 영역을 개발시키는 한편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자기이행적 예언효과를 낼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Geis, 1993).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영역에서 자기를 분리시킴으로 자아를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 독립과 주도성, 지도력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믿고 있는 사회에서 살면서, 여성들은 그 영역에서 자신을 탈동일시키고, 거리를 둬으로써 그와 관련된 능력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사회가 여성의 영역이라고 규정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 영역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언어영역이나, 인간관계적인 역할을 어려서부터 놀이를 통해 배우고 담당하고 훈련하면서, 그 영역의 능력을 키우면서, 자신을 인간관계 중심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 3) 지위와 파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나 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위의 분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지위를 놓고 경쟁하며,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부터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설정하려고 한다. 상대적인 지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형태로 사귄지, 친밀감은 어느 수준

으로 유지할지,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할지를 결정해 준다. 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자 한다.

지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정도에 의해 획득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부여받는 지위(given status)도 있다(Fiske, 1998). 기대-상태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두 종류의 단서를 사용한다. 그중 특수지위특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과제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수준이고, 보편지위특성은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자질을 말한다(Forsyth, 2001).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이 두 특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성 고정관념은 여성의 자질을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보편지위특성에서 남성보다 불리하다. 따라서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능력이나 특수지위특성보다 보편지위특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두 가지 특성이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보편지위특성 때문에 남성들과 똑같은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점차 성차별 금지조항이 수용되고 있지만, 성 고정관념에 의해 보편지위특성이 여전히 암묵적으로 고려되면서 여성들의 능력은 의심받고, 지위를 얻기는 쉽지 않다.

여성들이 보편지위특성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남성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여전히 위험요소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지위를 얻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관계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위험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지위와 관련된 사회적 성취분야에서 자신을 탈동일시하고 떼어놓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Nelson, 2002). 즉 사회적 성취나 지위는 여성이나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자신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전히 권력의 욕구 또는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구는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이나 관계를 통해 간접권력을 추구할 수 있고(리치, 1995), 이는 자아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Sedikides와 Gaertner(2001)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자아를 집단적 자아나 관계적 자아보다 더 우선시 하지만, 개인적 자아가 부정적으로 읽혀지거나 위협을 받을 때 집단적 자아나 관계적 자아를 사용하여 개인적 자아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힌다. 즉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이 의심받고 지위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계적으로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찌기 여성의 파워를 연구한 Johnson(1976)도 지적했다. 그녀는 여성들은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파워에서 불리하므로, 무기력함이나 간접적인 영향력을 추구하며, 보상파워와 참조적 파워와 같은 관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이 간접권력이나 관계적인 영향력에 의존하는 현상의 배후에는 성차별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Glick과 Fiske(1999)는 잘 분석해 내고 있다. 그들은 남성들은 구조적인 파워를 가지면서 여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의존하면서 여성에게 이자적(dyadic) 파워를 허용했다고 지적한다. 남녀집단은 파워구조에서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지만, 남녀가 갈등적이지 않은 이유는 남녀관계가 이성애를 포함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 때

문이다(Fiske, 1998). 즉 남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제공하는 구조적인 파워를 가지면서, 인간관계에서는 여성들에게 의존하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동시에 관계를 통해 간접적이고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파워구조 자체가 여성을 관계적인 특성에 묶어두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남성의 구조적 파워와 여성의 이자적 파워가 두가지 대비적인 성차별주의, 즉 적대적인 성차별주의와 우호적인 성차별주의와 관련되었다고 지적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지배주의, 남성 우월주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차별주의는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남성들이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여성은 낮은 지위에 위치 지우는 형태로 나타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들의 구조적 파워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남자는 여자보다 우수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파워를 가질만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저야하는 부담을 강조한다.

우호적 성차별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서, 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 이성애적 친밀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통적 성 역할과 지위의 차이를 지지하고 정당화한다. 즉 남녀의 배열은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특징짓고, 여성의 호감적 특성들을 강조하면서 여성도 여성적 영역에서는 파워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우호적 성차별주의와 더불어 남성들이 보이는 이성애적 의존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상대를 보살피고 개인적 관계에서 이자적 파워를 즐기고 싶은 욕망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우호적 성차별주의가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결국 이

것도 여성의 종속을 합법화시키고, 적대적 성 차별적 신념과 함께 진행된다. 즉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여성이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을 때 보여지는 것으로서, 여성이 자신에게 할당된 이자적 파워나 개인적 파워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조적 파워에 도전할 때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작동하게 된다. 즉 성 고정관념의 처방을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처벌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들에게 작동하는 성차별주의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역할과 파워를 추구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쳐 자신을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경향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 5. 관계적 자아의 위치

자아가 유의미한 타자들이 개인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와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지위,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언어 속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자아의 탈현대적 이해는 여성들의 자아이해에 더 적합해 보인다.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와 역할, 고정관념의 대상(target)으로서의 입장은 상황과 맥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들에 놓이면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working self의 중심에 놓게 되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만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성들은 사회가 처방한 약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자기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한 특성인 관계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관계적

요구에 부합되는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

Gergen(1991)은 관계적인 자아를 탈현대의 인간의 조건으로 본다. 진실성, 진리는 근대 이전 시기에는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탈현대 시대에는 사회적 연결이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 맥락 속에서 자신을 다양하게 투자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적 카멜레온이 되어가고, Protean self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탈현대의 인간조건이 파편화되고 쪼개지고, 상황 의존적이라고 한다면, 한 개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행동하는 주체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다. 즉 자아 정체성의 진정성과 통합성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여성의 경험은 남성보다 더 관계 의존적이고, 이것이 자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자아의 진정성, 통합성의 문제는 여성에게서 더 심각하게 부각된다. Harter(1997)는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안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않고 타인들이 보이는 견해를 혼합해 거짓 자아(false self)를 형성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인정받기를 원하는 중요한 타인의 요구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과 태도를 억제하고 타인들이 보고 듣기 원하는 것만을 표현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Harter는 Gilligan(1982)의 연구를 재해석하면서, 여아들이 청소년기에 그들의 목소리를 잃어간다고 지적한다. 여아들이 독립성이나 논리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경향성을 진정성의 상실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아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역할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자아를

만들어가고, 각기 다른 자아들이 증식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나인지 진정성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Gilligan이나 Chodorow, Miller 등은 여성들에게는 타인과의 연결성이 자아 발달의 핵심이라고 보며, 여성에게 있어 타인과의 관계는 자아의 명료함, 실재, 진정성을 준다고 보아 왔지만, 관계나 보살핌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그 개인의 실제적인 능력이나 소원, 독립적인 측면은 무시되고 참 자아발달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관계에서의 종속적인 지위를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로 변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인식이나 해석은 가치관을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립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고, 인간 관계나 가족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돌봄을 향한 활동에 자신을 헌신하게 된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여성역할의 정의를 내면화하고 자신을 관계적으로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보다는 양육과 배우자 지원을 더 중요한 것으로 평정한다. Eccles와 동료들(1999)의 종단연구 결과에서 보여지는 바는 남녀 학생들은 각기 다른 가치관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가족을 위해 직업을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직업을 갖는 이유도 타인을 돕고 사회에서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남학생들은 유명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며,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것을 가치 있게 보았으며, 그러기 위해 수학과 컴퓨터 사용 직업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여성들은 가족의 필요에 따라 남성보다 더 자신

의 직업을 쉽게 희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진다. 유교적, 가족주의적 전통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을 관계 속에서 의존적인 존재로서만 바라보도록 했던 사회적인 태도는 우리의 의식 속에 아직도 무너처럼 박혀 구체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한 여성들은 자신을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동일시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서 만족해 왔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편의 지위나 파워, 자녀의 성적, 부모의 인정등이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어 왔다. 한국 남성들이 사회의 윤리-가치를 자신의 자아구조에 편입시켜 자기를 평가하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며, 출세를 위해 노력한다면, 여성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의 자아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보조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혼신을 다해 왔다. 그러나 남편이나 자녀가 여성들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욕구를 대리 만족시켜줄 수는 없으며, 자아실현을 해 줄 수도 없다. 더욱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했을 때, 자식이 출가하고 나서 자신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여성들의 자아는 흔들리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기가 잘못해서 남편이 저렇게 되었다고 믿고 지옥같은 상황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현상도 자아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 여성들은 여성적 마조히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벗어나 개인적 자아를 중심에 놓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김예숙(1996)은 이런 여성들은 사랑할 타인은 있지만, 사랑할 자기가 없다고 지적한다.

관계적 자아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 사회속

에 몸담고 있는 누구에게서나 존재하고, 또 필요한 자아의 측면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의 다양한 자아의 모습들 중에 일부로 작용하고, 특정 시점, 특정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성만을 자아의 중심에 놓고 자기를 규정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아야만 할 때, 그 개인의 삶은 타인에 의해 쉽게 손상 당하고,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김선희(1997). 인격의 개념과 동일성의 기준. 철학연구 41호, 171-201.
- 김예숙(1996). 여성적 매조키즘은 존재하는가? 한국여성심리학회지: 창간호, 139-145.
- 길리건(1982)저, 허란주 역. 다른 목소리로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리치(1995).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서울: 평민사.
- Ashmore, R. & Jussim, L.(Eds.)(1997). *Self and identity*. NY: Oxford.
- Ashmore, R. & Ogilvie, D.(1992). He's such a nice boy...When he's with grandma: Gender and evaluation in self-with -other representations. In T.Brinthaupt & R. Lipka(Eds.). *The Self: Definition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236-290). NY: SUNY Press.
- Baumeister, R.(1998).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pp. 357-411). NY: McGrawHill.
- Benne, K. & Sheats, P.(1948). Functional roles of group members. *Journal of Social Issues*, 4(2), 41-49.
- Butler, J.(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Y: Routledge.
- Butler, J.(1997).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Y: Routledge.
- Chodorow, N.(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 Press.
- Cooley, C. H.(1902).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NY: Charles Scribner and Sons.
- Cross, S., & Madson, L.(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Deaux, K. & Kite, M.(1993)> Gender stereotypes. In F. Denmark & M. Paludi(Ed.). *Psychology of women: A handbook of issues and theories*(pp. 107-139).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Eagly, A.(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 & Madinic, A.(1993). Are people prejudiced against women? In W. Str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 psychology*(Vol. 5, 1-35). John Wiley.
- Eccles, J., Barber, B., & Jozefowicz, D.(1999). Linking gender to educational, occupational, and recreational choices: Applying the Eccles et al. Model of achievement-related choic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153-192), Washington DC, APA.
- Erikson, E.(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iske, S. & Taylor, M.(1991). *Social cognition*. NY: McGraw-Hill.
- Fiske, S.(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357-411). NY: McGrawHill.
- Forsyth, D.R.(2001), 서울대 사회심리학 연구실 (역), 집단역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Geis, F.(1993). Self-fulfilling prophecies: A social psychological view of gender. In A. Beall & R. Sternberg(Eds.), *The psychology of gender*(pp. 9-54). NY: Guilford Press.
- Gergen, K.(1985). The social constructionist movement in moder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0(3), 266-275.
- Gergen, K.(1991). *The saturated self: Dilemmas of identity in modern life*. NY: Basic Books.
- Glick, P., & Fiske, S.(1999). Gender, power, dynamics, and social interaction. In M. Ferree, J. Lorber, & B. Hess(Eds.), *Revisioning Gender*(pp. 365-398), NY, Sage.
- Glick, P., & Fiske, S.(1999). Sexism and other "isms": Independence, statu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pp. 193-222), Washington DC, APA.
- Harter, S.(1997). The personal self in social context: Barriers to authenticity.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pp. 81-105). NY: Oxford.
- Higgins, E.T.(1996). The "self-digest": Self-knowledge serving self-regulatory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62-1083.
- Johnson, P.(1976). Women and power: Toward a theory of effective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32(3), 99-110.
- Kihlstrom, J.F., & Cantor, N.(1984). Mental representations of the self.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7*(pp. 2-40). NY: Academic Press.
- Kimmel, M.(2000). *The Gendered Socie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us, H. & Cross, S.(1990). The interpersonal self. In L.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lationship*(pp. 488-526). NY: Guilford.
- Markus, H.(1977). Self-sch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Nelson, T.(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Allyn & Bacon.
- Rosenberg, S.(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ermental issues*(pp. 23-45). NY: Oxford U. Press.
- Sedikides, C., & Brewer, M.(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sychological Press.
- Snyder, M. & Cantor, N.(1998). Understanding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A functionalist strate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pp. 357-411). NY: McGrawHill.
- Williams, J. E., & Best, D.(1982). *Measuring sex stereotypes: A thirty-nation stud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Self-Identity of Women: A Non-Essential Interpretation

Cho, Hye-J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starts with an usual presupposition that self is social and interacts with others, and agrees with a thesis that human conditions are such that roles people play are pluralistic and force people to have relational selves. But this paper pays an attention to the theories that women construct relational selves more than men due to physiological states or developmental processes, and propose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at if women show relational selves more than men, the cause of the difference may be found not in some essential substances but in historical-cultural contexts in which women are placed. The difference is analyzed from a non-essential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by showing that conditions like social stereotypes, non-symmetrical roles, and unequal power status are operating in leading women to be more relational. This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what kind of dangers would result when women's selves are constructed only in relational terms.